

사회

# 우치동물원 '폐사 동물' 많다

## 수의사·치료장비 크게 부족 ... 3년간 82마리나

### 같은 기간 전주동물원의 3배 넘어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동물들의 폐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들이 병들거나 서로 싸우다가 한해 평균 21종, 30여마리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지난 2일 우치동물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7년~지자체) 동물 폐사 및 질병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사 동물은 모두 82마리(64종)였다.

2007년 26마리(19종), 2008년에는 27마리(20종), 지난해에는 29마리(25종)가 폐사되는 등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 우치동물원과 사육 규모(8일 현재 730마리)가 비슷한 전주동물원에서는 지난 3년간 24마리만 폐사한 것으로 나타나 우치동물원의 폐사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우치동물원에서 폐사된 동물은 사자·단봉 낙타·한국 늑대·재규어·카이만·꽃사슴·노랑 아나콘다·물소·일본 원숭이·하이어나·침팬지·흑표범 등 다양한 종이다.

폐사 이유는 호흡기질환인 폐렴이 16마리(19.5%)로 가장 많았고, ▲영역 다툼에 따른 싸움 9마리(10.9%) ▲심장마비 및 쇼크사 6마리 등이다. 반면, 노령화에 따른 자연사는 전체의 6%인 5마리에 그쳤다.

동물들 상당수가 열악한 시설과 환경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원 치료 장비는 고열 소독기·현미경·전자레인저·마취총·냉장고·저울 등 기본적인 것이 고작이다.

이들 장비로는 수술은 커녕 간단한 감기 검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게 광주

### 우치동물원 동물 폐사 및 질병현황

년도	동물명	마리수	질병명
2007	사자	2	노령사·싸움
	독수리	1	싸움
	하이어나	1	노령사
	수리부엉이	1	심장마비
	악어(카이만)	1	폐렴
2008	카이만	1	간경화
	재규어	1	세균성폐렴
	단봉낙타	1	폐렴·간염·신장염
	남미물개	1	소금중독
	재규어	1	화농성비강염
2009	노랑아나콘다	1	출혈성 장염
	사자	1	싸움
	한국늑대	1	육아중성 비장염
	독수리	1	세균성간염
	흑표범	1	간괴사
침팬지	1	간경화	
제주마	1	산통(장감돈)	

지역 수의사들의 설명이다. 수의사 수도 모두 3명(소장 1명 제외)으로 한 명당 214마리의 동물의 질병을 예

방·치료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에서 동물을 진료한 적이 있는 광주의 한 동물 병원 원장은 "(동물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한다. 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사육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동물들이 폐사하고 있다"며 "치료 장비도 이종식 X-레이·초음파 기계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 보통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2년 개원한 면적 12만 1302㎡의 우치동물원은 137종·632마리(지난달 21일 현재)의 각종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는 호남지역 대표적인 동물원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11학년도 수능(11월 18일) D-100일을 하루 앞둔 9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성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더위를 쫓기 위해 교실 뒤편에서 선풍기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보일러 등유 화물차에 주유

# 보조금 수천만원 행진 40대 영장

영업용 화물차에 보일러용 연료를 주유한 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신청,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물류업자 겸 지입차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9일 박모(48·광주시 광산구 수안동)씨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

터 지난달 14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 물류주차장에 비인가 유류 저장 탱크(1000ℓ 짜리 6개)를 설치해 놓고 8만3000원ℓ의 보일러 연료인 중유를 보관하며 자신 명의의 지입 화물차 8대에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2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중유유가 경유보다 ℓ 당 400원 가량 싼데다, 화물

차에 주유를 해도 운행이 가능한 점으로 보고 광주지역 화물운수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이날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중유를 화물차에 주유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15건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광주지역 화물운수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이날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중유를 화물차에 주유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15건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광주지역 화물운수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이날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중유를 화물차에 주유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15건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중국산 청각 1.3t '포대 같이'

# 국내산 둔갑 판매 50대 검거

목포세관은 중국산 청각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려 한 유모(59)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말 중국에서 수입한 청각 6t 중 1.3t을 중국산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는 국내산 청각이 유통되는 포대에 재포장

하는 이른바 '포대 같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 청각은 중국산과 비교하면 발이 통통하고 윤기가 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거의 구분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어린이집 돌며 학부모 행사 절도



○어린이집에 서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 행세를 하며 상품적으로 상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달미.

○9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신모(여·27)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집 상담실에서 김모(32)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김 교사의 현금 13만원·신용카드 2장 등이 든 지갑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광주지역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며 5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학부모 행세를 하면서 어린 자녀를 피해 어린이집에 보낼 것처럼 속인 뒤 상담 교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도 행각을 했는데, 경찰에서 "나는 지갑을 훔친 적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의사가 女환자 잠재위 성추행

## 수면 진정제 투여 ... 피해 여성 13명

### 광주 50대 정형외과 원장 구속

광주시 동구 모 정형외과에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A(여·55)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30분께 진료실로 향했다. 잠시 뒤 진료실에 나타난 원장 B(58)씨는 A씨

를 줄곧 치료해온 의사였다. A씨는 "근육 내 자극 치료(IMS)를 한다"는 B원장의 말을 듣고 침대에 드러누웠다. 원장은 진료실에 있던 간호사도 내보냈다. 기다렸

는 듯 B원장은 수면 진정제인 '도미컴'을 투약한 뒤 A씨가 반수면 상태에 빠지자 은밀한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다.

성추행 장면은 캠코더에 고스란히 찍혔다. 간호사를 진료실 밖으로 내보낸 뒤 진료를 해온 B원장을 이 상히 여긴 A씨가 자신의 손가락에

캠코더를 숨겨서 진료를 받으려 간 것이다.

B원장은 수면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가 신경 감각은 살아 있으나 근육 이완으로 환자 의사에 따라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반수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 못된 짓을 해왔다. 피해 여성만도 무려 13명이나 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B원장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B원장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한편, 광주시의사회는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B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목포 1명 등 11명에 전자발찌 소급 부착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슬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4년간 복역하고 지난날 출소난 A(35)씨에게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 부착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 3월 대상자를 소급·확대할 수 있게 개정된 전자발찌법이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A씨는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소급해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된 전국 63명 중 11명에게 부착명령이 내려져 모두 집행됐다. 지역별로는 목포 1명, 서울 2명, 대전 2명, 춘천 1명, 군산 2명, 광주 1명, 여주 1명, 홍성 1명이다.

/연남뉴스

# 여수 건설노조 6년만에 총파업

## 협상 10분만에 결렬 ... 장기화 우려

여수지역 건설노조가 9일 6년 만에 총파업을 선언한 뒤 (사)여수산단건설업협회의와 첫 교섭을 가졌으나 10분 만에 결렬돼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여수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사측의 임금 5%삭감안 철회 ▲퍼즈기간(정규직업 전 준비시간) 휴업 보장 ▲안전화 지급 명문화 ▲임금체불시 원청사 직접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어 오후 2시 여수망파경계장 태권도협회의 사무실에서 건설업협회의 관계자 등과 만나 제23차 교섭을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의 증설과 정비,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도 크고 작은 차질이 우려된다. 여수산단에는 호남석유화학이나 화인케미칼, 금호석유 2공장, 휴펜스 등이 현재 공정중이거나 증설이 예정돼 있다.

건설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파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지역에 파견돼 있는 조합원들까지 합류하는 장기화 파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파업 수위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업협회의 사무국장은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교섭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총파업을 풀기 전까지는 협상에 임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교섭조차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업에 앞서 10여 개 업체들이 최근 직장 폐쇄를 단행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총파업 기간동안 마찰이 예상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GOLFZON

광주 최고사설 스크린골프장

자이언트골프존